

과학전문기자가 본 황우석 교수 사태①

취재원 의존도 높은 과학기사 오보 확률 커

글 | 이은정 _ 경향신문 과학전문기자 ejung@kyunghyang.com

한국에서 과학자는 전문지식인이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과학자는 국가, 나아가 인류를 위해 봉사, 헌신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과학자들의 모든 활동도 이 기준으로 해석된다.

과학자들, 동료집단 사이의 평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

과학자는 다른 직업군보다 전문적이다. 학사-석사-박사로 이어지는 교육 과정에서 한 분야를 깊이 다루므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전문성은 같은 학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뉘게 된다.

과학자는 사회와의 교류가 적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 사회와 직접 교류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 과학기술은 장기적이며 분야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해당 인물들이 한꺼번에 교체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면들은 연구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연구의 폐쇄성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과학계 내부의 평가에 중요성을 둔다. 과학자들은 동료 집단 사이의 평가를 가장 중시한다. 과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동료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료 평가는 돈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성향을 띤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명확하게 계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 입소문 등에 의해 퍼지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존심이 강하다. 자신의 영역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며 외부에서 이를 침해할 때 방어하는 태세를 취한다. 특히 과학에 대한 조예가 없는 상황에서 과학 혹은 과학자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폐쇄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전문적인 과학 정보 기사화때 확대·왜곡 빈번

과학기사는 신문 지면에서 문화면, 경제면, 교육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90년대 초중반의 과학 기사들은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측면이 강했다. 과학 담당 기자도 대부분 문화부, 생활과학부 등에 속해 있으면서 문학, 학술담당과 비슷한 근무 형태를 보였다. 또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인 효과도 강조해 쉽고 재미있는 과학기사 발굴에 관심을 보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IT, 인터넷, 통신 산업이 확대되면서 과학은 순수 학술적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동한다. 과학 분야도 경제과학부, 경제부, 산업부, 인터넷부 등 경제관련 부서에 배속되기 시작했다. 경제 분야에 배속되면서 과학의 산업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현재까지도 과학기사는 문화, 경제의 중간 카테고리에 존재한다. 다만 1998년 IMF 이후 확산된 이공계 기피론 등으로 사회 현상으로 다루지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과학기사는 전문적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하기까지 다른 기사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동시에 전문성을 가진 취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정보를 다시 대중적 시각으로 가공하면서 정보의 왜곡, 오보가 생길 소지도 높다. 과학자들은 정보의 왜곡에 대해 가장 강하게 불만을 갖는다. 언론사 내부에서 과학은 인기 있는 취재 분야가 아니지만 최근 전문기자제의 확산 현상과 함께 과학전문 기자들이 생기고 있는 추세다.

황 박사 사태 특이현상 .. 과학자 스스로 왜곡된 정보 제공

과학자들은 결론을 쉽게 내리지 않는다. 99% 확신하더라도 1%의 불확실성이 있다면 '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향은 한쪽 방향을 지지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나 기사는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는 '원하는 멘트를 잘 해주는' 과학자를 선호하게 된다. 그것이 기사 전체의 질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라도 기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기사 생산은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동료에 대한 평가를 대외적으로 하지 않는다. 설혹 다른 동료가 자신의 연구를 과장하더라도 이를 대놓고 비판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현탁 박사의 금속절연체 전이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성향은 취재원 의존도가 높은 과학기사의 특성상 오보의 위험으로 이어진다. 학계의 자정 기능으로 과학자 집단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과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스타 과학자를 중시하는 보도 성향에 따라 개인 과학자의 언론 플레이가 기사에 반영될 수 있다.

황우석 박사의 사례와 같이 참여한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 과학자 스스로 정보를 왜곡하는 현상도 보였다. 기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인터뷰에 응하다가 잘못된 멘트가 나갈 수도 있지만 몇몇 사례에서는 과학자 스스로 의도적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과학자의 행동 양식과 다른 것으로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